나에게 쓰는 편지 20194651 소프트웨어학과 조나단

학기말의 나에게,

잘 지내지? 기말 시험도 끝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지금 여기는 이제 막 봄이 찾아와서 꽃들이 피려고 해. 너는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겠구나. 여러 가지 과목을 들어보니 어떠니? 특히 글로벌한자 과목은 어땠어? 나는 학교에서 졸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수업을 들어본 너는 어떨지 모르겠네.

처음 신청할 때 한자라는 과목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나의 직업이나 전공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표기를 하는 한국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 같아. 평소에 신문이나 책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많은 한자를 사용하는데 글로벌한자라는 강의를 통해 그런 한자들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 학기를 마친 너에게 이제는 한자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2학년때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1년을 지내고 그 후에는 군대를 다녀오고 3, 4학년때는 전공 수업과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 군대를 가기 전에던지 다녀온 뒤에 복학하기 전에는 길게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 전세계 어디로 가던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너도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학교에서 하는 전공 수업이 관심이 있어도 이미 아는 내용을 배우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를 다시 다진다고 생각하고 꼭 열심히 들어. 지금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더 관심 있는 부분으로 깊이 공부해서 더 경쟁력을 키워봐.

2학기도 열심히 하고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렴.

2019년 3월 18일, 학기초의 내가.